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회소식

발행인: 이호영  
편집인: 강승수

# 총회소식



##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갑시다!

주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  
총회 산하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백 척이나  
되는 장대 끝처럼, 일촉즉발 같은

험난한 시대상 속에서 잠언(23장34절)의  
말씀처럼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  
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  
며” 탈출구 없는 절망적 상황 가운데 막혀  
있을 때 우리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다윗  
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고 우  
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셨으며  
2018년 이 새로운 한 해를 변함없이 허락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새 소망  
을 갖고 일어설수 있게 하시는 주심께 감  
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실수와 허물로 인  
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잘 살지 못함에도.  
이사야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  
리니”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개하는 마음  
으로 새로운 결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살  
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이 한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과 같이,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선한 말을 하며 무슨 일에든지 최선을 다  
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  
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  
없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낙비 같은 은혜  
를 주셔서 주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주의 은택으로 인하여 즐거  
움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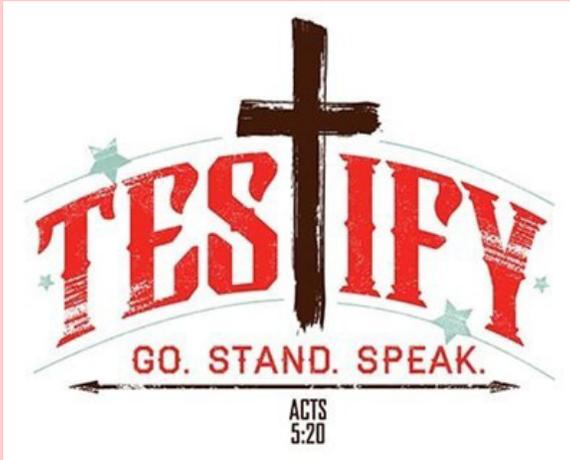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  
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  
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  
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3-14)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소원하며, 모든 사  
랑과 존경으로 동역자 되신 목사님, 선교  
사님, 사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과 유익이 넘치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차례

부름의 상을 위하여	1
37차 총회를 기대하며	2
총회사역과 협동선교	3
부서별 사역 안내	4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5
지방회와 교회 소식들	6

## 제 37차 총회를 기대하며.....



**일시:** 2018년 6월 11(월)-14(목)  
**장소:** 세미한 교회 (Dallas, Texas)  
**성경구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 5:20)

### 증거하라! “가서.. 서서.. 말하라”

(SBC주제 / 한인총회 주제는 아직 미정입니다.)

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달라스 세미한 교회에서 제 37차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가 진행됩니다. SBC 총회도 동일한 날짜에 달라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회원들을 위해 마련된 숙소는 Omni Hotel이며 (Omni Dallas Hotel at Park West, 1590 LBJ Freeway, Dallas, TX 75234)로 좋은 시설과 쾌적한 공간의 최고급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여 회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139이며, 일인당 \$25의 아침식사 부페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달라스 북부 지방회에서는 총회 임원들과 함께 많은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이 참석하여, 유익하고도 뜻 깊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회원들께서는 미리 시간을 계획하시어, 올 해의 주제와 같이 영적인 도전과 재충전의 시간, 주님 안에서 동역자된 목사님과 사모님들과의 마음 속 깊은 교제의 시간, 즐거운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총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서 등록용지와 세부사항 및 광고들을 앞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총회 사역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 강승수 총무

저희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는 800여 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내 최대 한인 교단입니다. 저희 총회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또 각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총회는 크게 5개의 부서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교육부, 목회부, 영어목회부)와 3개의 위원회(신학교분과, 여선교회 분과, 형제회분과 위원회)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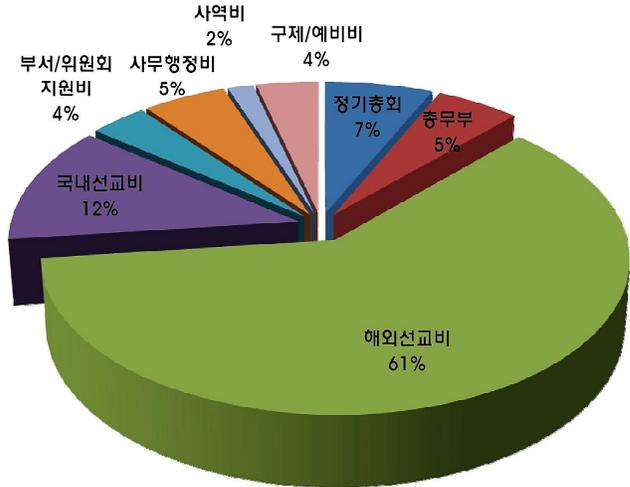
먼저 저희 총회는 현재 약 300여 선교사를 IMB를 통해 파송하였고 자체적으로 해외선교부를 통해 55명의 선교사들을 총 20개 나라에 파송하였으며 많은 교회들의 후원으로 그들을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선교부는 중국, 서부아프리카, 남미, 중남미 등에 신학교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사역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선교부에서는 현재 개척하는 30여 교회들을 매달 \$300씩 지정하고 있으며 매년 대학에 진학하는 목회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목회부는 목회자들에게 교육과 목회에 관한 세미나와 연장교육을 통해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목회부에서는 영어목회자들을 세우고 또한 부족한 영어목회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컨퍼런스와 네트워크를 통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선교회 분과 위원회는 선교교육과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역하고 있으며 형제분과 위원회에서 재난구조와 다양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분과 위원회는 미국 내 각 신학교과 신학생들을 관리하며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해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총회는 지난번 휴스턴 하비와 같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나 목회자 가정들

미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2017년도 항목별 지출도표



을 돕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총회는 미자립 교회들과 작지만 소중한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통해 미국 각 도시와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차게 확장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 1. 총회사역을 위해, 그리고 총회 산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마다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후보에 실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이름을 후보를 선교단체로 실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협동선교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선교사들을 몇 명씩 매달 후원하는 것을 보며 참 기뻐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총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협동선교(총회비가 아닙니다)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면 더 많은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 부서별 사역 안내

## 해외선교부

### 1. 쿠바 선교지 답사 계획

오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해외선교부 이사들이 쿠바 선교지를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곳에 있는 쿠바 침례교회를 방문하여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한인 후손들을 만나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므로 앞으로 교회 개척 가능성에 대한 현장을 돌아보고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 2. 선교사 인준 절차

이번 달라스 총회 기간에 선교사 인준 및 파송을 계획하는 교회에서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서류 심사를 마친 후 개별 통보를 받은 분들에 한하여 이사회 기간 중 인준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 실행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모임



총회 숙소, Omni Hotel

### 1. 실행위원회 모임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2박 3일간 제 2차 상임위원회를 갖는다. 숙소는 시애틀 공항 부근의 Comfort Suites Airport이며, 이번 37차 총회의 임원 투표를 위한 인선위원회의 제반 진행 절차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 2. 상임위원회 모임

오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세미한 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진행된다. 숙소는 총회 숙소인 옴니 호텔이며, 상임위원들은 총회 대의원들이 머물게 될 모든 시설들을 돌아보고, 총회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목회부와 여선교회 분과에서 진행하는 “목회자 선상세미나”



Carnival호

목회부와 여선교회 분과위원회는 오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목회자 선상세미나”를 진행한다. 캘리포니아의 롱비치에서 출발하며, 4박 5일 동안 엔세나다, 멕시코를 돌아오는 여정으로 선착순 50쌍의 등록을 받았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일찌감치 등록이 마감되었고, 특별히 사모님들께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겠다는 이호영 총회장의 약속의 실천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셨다. 이에 사모

님과 함께 오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등록이 불가했으며, 사모님들끼리 오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등록되었다고 한다.

크루즈 여행이 처음이신 분들은 반드시 총회 홈페이지에 나온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여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www.carnival.com/Official-Site](http://www.carnival.com/Official-Site)에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란다.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후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분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목회부 부장 두지철 목사 832-461-9400

총무 김영하 목사 714-280-5684

여선교회 분과 위원장 최미희 사모 302-535-1273



**KoNeXT**

#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 Youth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영어목회부 서에서는 오는 4월 6-8일까지 **KoNext Youth Student Leadership Conference** 를 주관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목회에 소명이 있거나 앞으로 이세들을 섬기기 원하는 한인 1.5세나 2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세 사역자들의 수가 너무 부족하고 더 어린 2세들을 이끌어 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한인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유스들의 주축돌 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 2세 사역자들에게 훈련도 받고 또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 현재 재학중인 1.5세 2세 학생들과도 교제를 가짐으로 한인 이민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학생들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서로 비슷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서로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에서 해마다 열리는 Youth Ministry Lab이란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저희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Chip Luter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 Sixteen Cities 찬양밴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Breakout Session에서는 1.5세 2세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다양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컨퍼런스 스케줄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30명의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두 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나 혹은 어른 한 분이 보호자 차원으로 학생들을 인도해서 오는 것을 권면합니다. Youth worker 과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숙소는 아래 정보대로 각자 예약하시고, 학생아파트에 거주하는 몇 명의 신학생들 중 민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날짜: 4월 6(목)-8(주일)**

**등록비: \$55**

**장소:**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2001 W. Seminary Dr.  
Fort Worth, TX 76115

**대상:** Adult Youth Worker  
1-2학년 고등학교 학생

**숙소:**

**Holiday Inn Express and Suites**  
4600 Citylake Blvd.  
Fort Worth, TX 76132  
Rate: King\$109, 2Queen \$119  
Reservation: 817-292-4900  
\* 예약은 각자 하며, 3월 22일  
까지 할 수 있습니다.

**Courtyard Marriott**

6400 Overton Ridge Blvd.  
Fort Worth, TX 76132  
Rate: \$104  
Reservation: 817-294-7600  
\* 예약은 각자 하며, 3월 15일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Peter Jung 전도사, peterkhjung@gmail.com, 웹사이트: <http://konext.org/ylic>로 하십시오.

## 지방회와 교회 소식들

### 하와이 지방회 성탄모임 / 12.14, 2017



하와이 지방회는 지난 12월 14일(목) 오후 5시에 할레코아 호텔에서 2017년 성탄 감사 목회자 가족 만찬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목사님 내외 20분과 자녀들 6명이 참석하여 한 해를 돌아 보며 즐겁고 뜻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참석한 자녀들 모두에게 소정의 특별 장학금을 전달했고 지난 3년간 임원으로 수고하신 장주용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난 32년간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다가 새해부터는 KTEE 선교사로 헌신하여 한국으로 떠나시는 김일경 목사님의 송별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마감 하면서 하와이 지방회가 더욱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각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더욱 크게 기여하는 하와이 지방회가 되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뉴욕,뉴저지 지방회 성탄모임 / 12.12, 2017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가 지난 12월 12일(화) 오후 6시에 뉴욕 마하나임 선교교회(박춘수 목사)에서 있었다.

회장 박진하 목사는 예배에 앞서 "2017년은 쉽지 않은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사역을 위해 힘들다고 뒤로 돌아가지 않고 바쁘다고 핑계치지 않고 주어진 사역을 위해

열심히 한 목회자들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 진다"라고 격려의 인사를 했다.

이어진 예배는 인도 신은철 목사(뉴욕 서기), 기도 김영환 목사(뉴욕 부회장), 특별찬송 뉴욕과 뉴저지 사모 연합, 설교는 김화용 목사(뉴저지 증경회장)가 "왕 앞에서의 결산"이란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후회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지 도전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목회자 자녀들(송호수, 성예진)의 봉헌 연주에 이어, 광고 박춘수 목사(뉴욕 총무), 헌금기도 및 축도 신석환 목사(뉴욕 증경회장)로 진행되었으며, 박근재 목사(뉴저지 증경회장)의 만찬기도 후 저녁식사와 게임과 선물교환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교가 진행됐다.

### 버지니아 지방회 사모초청 만찬모임 / 12.28, 2017



버지니아 지방회(회장 장호열목사)는 여성분과(위원장 최은정사모) 주관으로 지난 12월 28일 저녁, 페어팩스 소재 예루살렘 한인침례교회(조용희목사)에서 북버지니아지역과 리치몬드 지역 침례교회 목회자 부부 동반 송년 모임으로 초청하여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와 식사 그리고 선물 교환 등의 시간을 가졌다.

사모 모임에서는 박효순사모(예루살렘 침례교회)가 말씀은 전하였고 최은정사모(우리교회VKBC)의 진행으로 선물 교환 및 간증과 나눔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회자 모임은 회장 장호열목사의 인사로 모임을 시작하여, 신년목회를 위한 목회 방향과 예배 설교 계획 및 제자 훈련 계획에 대해 대화하며, 새해 목회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으며, 문동순목사(한미침례교회)의 기도로 마쳤다.

## 지방회와 교회 소식들

### 텍사스 중서부,남부지방회 송년모임 / 12.26-27, 2017



지난 12월 26-27일에 중서부 지방회와 남부 지방회가 함께 텍사스의 수도인 어스틴에 모여 송년 모임을 가졌다.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김성배목사)에서 호스트를 해주셨고 어스틴에서 있는

4개 교회의 사모들께서 맛있는 "진수성찬"의 저녁을 준비해 주셨다. 중서부 지방회 회장 김동선목사(템플 한인제일침례교회)의 사회, 김한국 목사(뉴라이프 교회)의 인도로 다 함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고, 류복현 증경 총회장(킬린 한인침례교회)께서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나눠주셨다.

모임에 참석한 강승수 총무는 총회의 비전을 나누며 "연약한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힘쓰자는 말씀을 나누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텍사스 한인 주총회가 준비하는 목회자 포럼에 대해, 이 모임을 호스트하는 서정구 목사(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께서 광고와 초청의 말씀이 있었다. 예배 후에 이어진 송년 모임은 개그맨을 능가하는 윤효원 목사(하이드팍 침례교회)의 인도로 게임과 선물 교환 및 교제의 시간이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 버지니아 지방회 신년하례회 / 1.15,2018



버지니아, 메릴랜드, 델라웨어에 소재한 남침례교 한인 목회자들이 지난 15일 우리교회 VKBC(양승원 목사)에서 신년하례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가졌다. 버지니아 지방회(회장 장호열 목사)가 주최하고 메릴랜드 지방회(회장 김재학 목사)가 후원한 신년하례예배에는 50여 교회 100여명의 목회자 부부들이 참석, 새해 인사를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각 교회에 주어진 비전을 새롭게 했다. 워싱턴 성광교회 찬양팀과 조재영전도사의 찬양 인도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 임용우 목사(워싱턴성광교회)는 빌 3:10-14을 본문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시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능력과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목회하려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

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여 상급을 바라보며 열심과 열정으로 목회하는 목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목회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정영길목사(워싱턴 한인침례교회)의 집례로 주의 만찬도 열려 참석자들은 떡과 포도주로 모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했다.

특히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총무인 강승수 목사가 참석해서, 총회가 개교회와 목회자들의 연합과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버지니아 지방회는 다음 달 19일 DC 성경박물관을 단체 방문할 예정이며 4월에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메릴랜드 지방회는 3월 세미나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5월에는 수도권 지역의 침례교 목회자들의 연합 야외 피크닉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7월에 갖는 목회자가족수련회는 수도권 지방회들이 연합으로 개최하며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예배 찬양과 말씀과 주의 만찬을 통해 뜨거운 은혜와 연합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지방회와 교회 소식들

### 일리노이 지방회 신년하례회 / 1.14,2018



메시지를 나누며 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는 회장 송민술 목사(침터교회)의 사회로 임시총회가 시작되었고 총무 한권희 목사(주님의 교회)의 사역보고와 회계의 재정보고가 이어졌으며, 간단히 분기회를

일리노이 침례교 협의회는 지난 1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삼버그 침례교회에서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삼버그 침례교회(김광섭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시작되었다. 식사 후 6시부터 김광섭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약 50여 명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안병학 목사(유니티침례교회)의 기도에 이어 총회 총무인 강승수 목사의 설교와 함께 총회의 비전을 나누었다.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는

마치고 윗놀이와 게임들로 진행되는 3부 순서가 이어졌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온도는 이미 영하로 내려갔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고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새 해에 일리노이 침례교회 협의회가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위에 각 교회들이 부흥, 성장하며, 교제권을 더욱 든든히 해가기를 기대한다.

### 중동,북부 지방회 신년하례회 / 1.29-31,2018



중동북부 지방회는 인접한 4개의 주에 소속된 침례교회들이 함께 모인 지방회이다. 인디애나 주, 9개 교회와 켄터키 주 7개 교회, 미시간 주 4개 교회, 그리고 오하이오 주에 있는 8개의 교회가 한 지방회로 모여 연합하고 협력하는 지방회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매달 모이지 못하지만 3개월에 한번씩 1박 2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늦게까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낸다.

신시내티 능력침례교회(이성권 목사)에서 모인 이번 지방회는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저녁식사가 끝난후,

능력침례교회의 찬양팀이 인도하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었다. 지방회 회장이신 이용원목사(신시내티 한인침례교회, 오하이오)의 인도로, 윤용필 목사(엘림 한인침례교회, 인디애나)의 대표기도가 있었고, 이성권 목사(능력침례교회, 오하이오)의 메시지가 있었다. "더 충만해야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점점 약해지는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목회자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은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반기열 증경 총회장(인디애나 폴리스 한인침례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월례회를 가졌다. 교회에서 1부 순서를 마치고 호텔로 자리를 옮긴 목사님, 사모님들은 늦은 시간까지 대화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화요일 아침 식사 후 다시 모인 자리에서 이번 모임에 참석한 총회 총무 강승수 목사가 총회의 비전을 나누며 총회와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협동선교비로 동참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김태두 목사가 (그린우드 한인침례교회, 인디애나) 인도하는 윗놀이와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진 후,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2-5시간 떨어져 있는 사역지를 향해 서로의 발걸음을 옮겼다.

가진 후,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2-5시간 떨어져 있는 사역지를 향해 서로의 발걸음을 옮겼다.

# 지방회와 교회 소식들

북가주 지방회 신년하례회 / 1.14,2018



북가주 지방회 신년모임이 지난 1월 16일에 갈보리 침례교회(이용주 목사)에서 있었다. 북가주 지방회 회장인 이용주 목사의 찬양인도와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증경 총회장인 신 조효훈 목사께서 교회의 명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다. 지방회 모임에 참석한 강승수 총무는 총회의 비전을 나누며, 서로 협력하여 총회의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풍성한 애찬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즐거운 웃놀이 시간이 진행되었다. 북가주 웃놀이는 큰 말판을 만들어 사람들이 말이 되어 돌고, 사람 키만큼 크게 특별 제작한 웃을 4인 1팀이 되어 4명이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것으로 큰 웃음을 선사했다.

노스 캐롤라이나 지방회 총회/ 12.4,2017



지난 12월 4일에 샬럿 열린교회에서 NC 지방회 총회가 있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께서 2-3시간의 거리에서 운전하여 참석하셨고 새벽에 출발하여 5시간을 운전하고 오신 목사님도 계셨다. 부회장이신 조재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한마음교회 조재언 목사의 기도가 이어졌고 이번 NC 총회에 참석한 강승수 총무의 메시지가 있었다. 강승수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배 후 이어진 총회에서는 한 해 동안 수고하실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었다; 회장/조재철 목사(샬럿 열린교회), 부회장/김기명 목사(헬로쉽교회), 총무/이강국 목사(골스보로 한인침례교회), 서기/이기웅 목사(샬럿 중앙침례교회)



CKSBCA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

PO Box 295357  
Lewisville, TX 75029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는 전국 850여 침례교회들이 드리는 협동 선교헌금으로 운영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교회들의 협동 선교헌금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록 변경 안내

교회 주소나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신 회원들께서는 지방회 총무께, 혹은 총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화: 972) 221-8026

이메일: [KoreanCouncilSBC@gmail.com](mailto:KoreanCouncilSBC@gmail.com)

## 총회 헌금 보내는 곳

### 1. 총회 협동선교비

CKSBCA  
PO Box 295357  
Lewisville, TX 75029-5357  
강승수목사(972-221-8026)  
[KoreanCouncilSBC@gmail.com](mailto:KoreanCouncilSBC@gmail.com)

### 2. 해외선교부

KBOM  
PO Box 621  
Beaverton, OR 97075  
김진규목사(585-295-3587)  
[kbom1040@gmail.com](mailto:kbom1040@gmail.com)

### 3. 국내선교부

HMB  
PO Box 23849  
Federal Way, WA 98093  
안광일목사(253-335-9101)  
[gccow@hotmail.com](mailto:gccow@hotmail.com)